"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비 지원을"

황인홍 무주군수, 기재부 찾아 3억원 정부예산 반영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국가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을 팔고 있다. 사진은 기재부 문화예산과를 찾아 현안 건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국가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을 팔고 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민선8기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3억 원)를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기재부 심의 중에 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최근 기재부 문화예산과를 방문하고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군수는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이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올림픽 종목에서 일본의 가라테 등 거센 도전을 차단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 공략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새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충실한 이행을 요청한다"라며 "무주군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사관학교 설립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 정책 제안서 제출 등의 노력을 펼쳐 왔다.

이외에도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전북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함께 동참하면서 전폭 지지를 위한 힘을 실어줬다.

2021년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 및 여론 형성에 주력했다. 2022년의 경우 기재부 국가예산으로 최종 반영시켜 반드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탄력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향후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반드시 무주군에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성사시키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문체부가 수립한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의하면,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대학 전문 과정 확대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사관학교 설립은 정부 정책 실현의 핵심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군은 내년도 국비확보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기재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세계유소년야구 유소년 국대 단장 선임

김성희 전북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오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대만 타이난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세계유소년 야구대회에 참가할 유소년 국가대표팀 단장에 전북야구소프트볼협회 김성희 회장(사진)이 선임됐다.

이에 따르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6월 8일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이동진 감독 외에 코치 2명과 선수단 18명을 선발, 최종 엔트리를 확정했다. 이번 선발에는 올해 흥타령기 전국초등학교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을 뽑았다.

특히 협회에서는 최종 엔트리와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변수와 부상 및 컨디션 저하 선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엔트리를 구성, 대회 직전까지 선수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상의 선수단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총 12개국이 참가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체코, 도미니카, 괌과 B조에 속해 예선 라운드를 치르게 된다. 예선 라운드 종료 후 8월 4일부터 각 조별 상위 3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해 슈퍼라운드 진출팀 간 예선 라운드 성적(2경기)와 슈퍼라운드 성적(3경기)을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상위 2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

이번 대회 국가대표팀 단장으로 선임된 김성희 회장은 경기도 안산에서 강화훈련을 진행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오는 24일 대회 참가를 위해 대만 타이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주)나노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김 회장은 2021년부터 전라북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아·태 마스터스 대회 홍보 박차

조직위, 외국인 SNS 서포터즈 대상 팸투어… 무주 태권도원 등 방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해외 홍보가 가능한 외국인 SNS 서포터즈 등을 대상으로 대회 경기장 및 도내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팸투어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19~20일 1박2일 간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홍콩 등 아시아 7개국의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 20여 명을 초청해 전주, 무주 일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에 초청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은 대회의 경기장과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감한 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대회 및 도내 관광지를 홍보했다.

앞서 조직위는 해외 인플루언서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한 정확한 대회 관련 정보를 전달해 홍보의 타깃과 방향 등을 제시했다.

19일에는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해 기왓장 격파 체험과 태권도원 전망대를 관람하며,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무주군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20일에는 전주로 이동해 전주실내체육관을 답사하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 전주비빔밥 등 한옥, 한식, 한복, 한지 등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를 마음껏 보고 느끼며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방역조치가 완화된 만큼 온·오프라인의 홍보 채널을 통해 해외 참가자모집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시아 지역 인플루언서를 필두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유럽 권역 등의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팸투어를 통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익산서 문체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

오늘부터 5일간 배산실내체육관서… 전국 215개팀 참여

차기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가 펜싱메카, 익산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를 21일부터 25일까지 익산 배산실내체육관에서 5일간 개최한다.

특히 최근 성황리에 종영한 고교펜싱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스물다섯, 스물하나' 드라마 영향으로 펜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국 중고 펜싱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전국 각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고펜싱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펜싱협회에서 주관하며 1000여명의 선수들을 포함해 심판·임원 등 총 1,500여명 이상이 참여한다.

21일부터 개인전 3개 종목 예선이 시작되고 22일에는 128강, 23일에는 개인전 32강부터 결승전까지 진행한다. 단체전 예선이 24일부터 시작돼 25일에는 단체전 본선 4강부터 결승전까지 열린다. 경기의 현장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배산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열기를 느낄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명품 스포츠 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미래 유망주 발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익산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펜싱은 찰나의 순간, 빠른 스피드로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 플러레, 에뻬, 사브르 3종목으로 나뉘어 진다.

/익산=이재춘 기자